

“계룡산 철화분청 친숙하게 감상하세요”

“철화분청 하면 생소하다 할 수 있는데 분청사기에 철로 그림을 그렸다 해서 ‘철화’라고 합니다. 철화분청사기는 계룡산 도예촌의 뿌리이며, 서민적이면서도 예술성이 뛰어난 도자기죠.”

15일부터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리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전의 작품 설치가 진행중인 14일 전시장에서 윤정훈 계룡산 도예촌촌장(57)을 만났다.

윤 촌장은 90년대 초반 계룡산 도예촌에 터를 닦고 작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입주해 있는 18명 도예가 중의 한 사람이다. 계룡산도예촌작가들은 돌아가며 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윤 촌장은 “당시 도예가들이 자생적으로 도예촌 터를 닦을 때였다. 계룡산에 좋은 도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데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 되살려내지 못하고 있어 평생 작업해도 마련하고 철화분청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지로 기거투합해 예술촌을 형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광주문예회관서 작가 10명 철화분청사기전 “전통의 창의적 해석 과제...광주 전시 알차게 선보이고파”

■ 계룡산도예촌 윤정훈 촌장

27번째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 그는 “광주문예회관에서 전시를 의뢰해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큰 규모의 전시를 선보이게 됐다. 광주에 철화분청사기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예촌작가들에게도 큰 의미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전시장이 넓고 마음에 들어 알차게 전시를 꾸며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분청사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철화분청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저변이 점차 확대되면서 찾오시는 분들이 생겼다. 광주에도 박지분청 등 훌륭한 양식들이 있지만 철화는 오로지 계룡산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기법이

므로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도자예술을 친숙하게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철화분청의 용도는 생활용기, 의례, 장식, 기호의 의미 등 다양하다. 오브제로 쓰이기도 하고 흙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결과물로 그 표현 방법 또한 다양하다.

윤 촌장은 이번 광주 전시에 대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된다. 철화분청이 단순 복원과 모방에 그쳐서는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닐 거라고 본다. 조선시대 당시 쓰여졌던 재료가 현재에서 어떻게 해석할 지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향유할 방법도 고



민해 보며, 창의적 해석으로 세상에 내놓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바디의 색깔, 철의 색깔, 작가별 표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모델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 다 매력 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연수 기자



서부소방서, 응급처치·생활안전강사 역량강화 교육

광주서부소방서는 14일 서부소방서 소속 응급처치·생활안전강사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동구, 주민 정보화과정 교육

광주시 동구는 주민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한글편집, 이미지, 스위시 활용(SWISH) 등 다양한 정보화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14일 정보화교육장에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일반 기초과정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



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기봉)은 14일 직업전환중심 전남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지원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1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배운주 광주지방경찰청장, 북부경찰서 격려 방문

배운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 유공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과 화합의 간담회’를 열었다.



강진MTB동호회 동해안 국토대장정

자전거 타고 A로의 초대·강진청자축제 홍보

강진MTB 동호회가 동해안 자전거길을 따라 강진군의 2018A로의 초대 및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제46회 강진청자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성철 회장을 중심으로 한 30여명의 강진MTB 동호회 회원들은 최근 3일간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경상도 고성군까지 동해안 자전거길 350km를 오르내렸다.

강진MTB 동호회는 지난 2009년 창립됐으며 그동안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모란100리길 동호인대회 등 수많은 대회를 통해 외지인들에게 강진군을 알렸다.

장단 이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국토종주를 통해 강진청자축제 등 강진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강진MTB 동호회원들은 강진 홍보를 위해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와 배낭 뒤쪽에 강진군을 알리는 홍보 깃발을 부착하고 우리나라 동쪽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출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해안을 따라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 해맞이 공원까지 MTB를 직접 타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진=한태선 기자



광양경제청, 중국 식품기업 투자유치

중국 연태시 일대일로위원회 세풍산단 현장 방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지난 14일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일대일로위원회 관계자와 식품기업인을 초청, 광양항, 울촌산단,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등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산둥성 동부에 위치한 연태시는 인구는 708만명, 경제규모만 1,150억달러에 이르며 주요산업은 장비제조, 자동차부품, 식품가공 등이다. 한중 FTA 협력사업으로 한중산단이 조성중이며, 광양항과 3차항 컨테이너선이 운행 중이다.

이번 초청은 원자재 수급과 수출에 유리한 광양만권의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환경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실현을 위해 이뤄졌다.

방문단은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광양항의 한중일 지리적 이점, 세풍산단 외투자지역의 저렴한 임대료, 한국산 식품의 안전성 등 한중합작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보고, 광양항 배후부지와 세풍산단 임대부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갑섭 청장은 “연태시 일대일로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중국 식품기업과 국내식품업체간 합작투자 등 세풍산단을 한중일 식품가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서부경찰, ‘제7회 인권영화제’ 작품 공모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극영화·다큐 2개 부문

광주서부경찰서는 시민과 경찰이 영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제7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참여 작품을 오는 7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영화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지난 2011년 만든 정부기관 최초의 인권영화제다.

경찰 인권 영화제는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

모는 극영화 부문(112초 분량)과 다큐멘터리(3분 분량)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응모작품 접수는 광주지방경찰청 청문 감사담당관실 이메일(kimun1@police.go.kr)로만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r2239)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중찬 기자

구례 자연드림파크, 8월 락페스티벌 개최



뜨거운 여름밤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록 음악 축제 ‘2018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이 오는 8월 25일 구례에서 열린다.

‘내 안의 즐거움(樂:Rock)을 찾아 떠나는 탐험’을 주제로, 라이브의 황제 가수 이승환이 간판 출연진(헤드라이너)으로 나서 압도적인 음악과 무대 연출을 선보인다.

독보적 음색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자우림과 ‘별빛이 내린다’로 이름을 알린 4인조 밴드 안녕바다, 로맨틱펀치, 정훈밴드, 라이브유빈, 오리엔탈쇼커스, 406호 프로젝트 등이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와 구례자연드림파크 곳곳을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히말라야 소녀, 대한민국 경찰된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라이삼자나씨, 채용시험 최종 합격

히말라야 소녀가 대한민국 경찰시험에 합격해 화제다.

조선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라이삼자나(여·28)씨가 지난 8월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 매년 약 30명 상당의 경찰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조선대 경찰행정학과에서 외국 출신

학생이 합격한 것은 라이삼자나씨가 처음이다.

네팔 태생인 라이삼자나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담양으로 이주한 후에도 평소 자신의 소원이었던 경찰관이 되기 위해 2015년 3월 조선대 경찰행정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처음 응시

한 경기도경찰청 내팔어 외사경찰 채용시험에 합격, 자신의 꿈을 모국 네팔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루게 됐다. 라이삼자나씨는 이후 중앙경찰학교에서 약 8개월간의 기초교육과정을 거쳐 경기도경찰청 소속 외사경찰로 근무할 예정이다.

라이삼자나씨는 “제가 외국인이라 대학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언어장벽, 어려운 경찰시험과목 등으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절하고 차별 없이 대해주는 학과 친구들과 다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해주시고 학업과 장학에

적지 않은 배려를 베풀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선대 이후 경찰행정학과장은 “수년전부터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를 대비해 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 경력을 지닌 학자들을 채용, 외국인 학생 전담지도 시스템을 시행해 오고 있다”며 “라이삼자나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광주서 특강

1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서 북구 누문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2층 강당에서 시민강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 전문위원은 이날 “공무원의 영혼 보장,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위한 특단 대책”이라는 주제로 특강

을 벌인다. 정 수석은 현재 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본사손님

- ▲이용섭 씨(광주시장 당선자)
- ▲사대석 씨(광주 서구청장 당선자)